

‘환테크’ 관심 집중… “달러 보유, 헤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고환을 뉴노멀 시대

4 달러 자산 변동성 확대

외환당국 고환을 해소 의지 ‘뚜렷’ 전문가들 수익성 중심 접근 우려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

달러의 ‘초강세’가 유지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달러 환전을 미루며 달러 보유고를 늘렸고, 해외 투자도 활성화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도 급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환을 국면에서 달러 투자는 ‘수익성’이 아닌 ‘헤지(위험회피)’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70원 내린 1532.00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외환당국은 달러 강세의 이유를 ▲중동사태의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수요 ▲수출기업의 달러 선호 및 해외 투자 증가 등 수요-공급 불균형 요인에서 찾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흑자 지속에도 고환율 국면이 계속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달러당 15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2.4조달러… 미국 비중 47%

28일 한국은행의 ‘2025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총 2조 4396억달러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3448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대외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내 금융자산은 1조 1492억달러를 기록해 최초로 1조달러를 넘겼다. 비중도 47.1%까지 올라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가 뚜렷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해카미’의 미국

투자 열기도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총 2036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1541억달러와 비교해 두 달 만에 30% 넘게 늘었다.

기업들의 달러 선호 성향도 뚜렷하다. 지난 11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543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의 490억2800만달러와 비교해 약 6주 만에 10% 가깝게 늘었다. 달러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했다 만기 시 원화로 돌려받는 상품으로, 달러예금 규모는 기업의 달러 선호를 반영한다.

수출 기업들도 달러의 원화 환전을 미루고 있다.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면서 헤

지’ 목적으로 달러 선호가 늘었고, 원화 대비 달러 자산의 수익성도 높아져서다.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에 해외 유보 자금의 적극적인 환전을 요청했지만, 주요 기업들이 현지 재투자 등을 달러 보유 이유로 제시하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인 전망이다.

◆ 환율 1500원대 등락 지속 전망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환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보유를 늘릴 땐 ‘자산증식’이 아닌 ‘자산가치 보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서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WM) 담당자는 “최근 기업의 달러예금 증가는 환테크 목적보다 환율 상승 리스크에 대응하고,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다”라며 “개인 차원에서는 환차익에 집중해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헤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해소에 대한 정부와 외환당국의 의지도 뚜렷한 만큼,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500원 중반대의 환율은 국내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라고 지적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간을 갖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을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500원대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러의 강세 요인이 여전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6월 FOMC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인 만큼, 관련 우려가 완화될 때까지는 달러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최근 달러 강세를 추세적 강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된다면 환율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의 매패적 통화정책 우려가 부각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이번주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됐다”면서 “달러화 상승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호조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흐름을 꺾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metro

asj1231@metroseoul.co.kr

은행, 모기지보험·보증 취급 제한… 대출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기조 영향 일각선 실수요자 부담가중 지적도

올 하반기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수단인 모기지신용보증(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부터 대면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모기지보험·보증 가입을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걸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이다. 주로 대출자의 초기 자본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의 위험을 낮

춰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은행들이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농협은행의 연간 목표 증가율은 0.70%다. 1~5월 주담대 증감목표는 3628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조6348억원 늘어 목표달성률 -450.3%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외 은행들은 상반기 주담대 공급을 대폭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간 목표치 0.70%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대폭 줄였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 927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목

표보다 더 많은 -1조2316억원을 기록하며 112.7%를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연간 목표치 0.695%,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 -1조3254억원이었으며, 실제로 -1조 306억원이 줄었다.

우리은행은 0.71%의 연간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로 -3919억원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8898억원을 줄이며 목표 대비 227.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0.59%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5429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실제 -1조5476억원을 감축하며 100.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잔금

미련을 앞둔 신규 입주 예정자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MCI·MCG 제한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신규 입주 예정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K-제약바이오, 국가정책자금 수혜… ADC 신약개발 속도전

국민성장펀드 리가켄바이오 직접투자

정부주도의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첫 바이오 직접 투자 대상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기업인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를 낙점했다. 대규모 국가 정책 자금이 마중물로 투입되면서 국내 연구개발 가치시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산 ADC 신약개발 시대를 앞당기는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총 5000억원의 자본 투자를 결정했다. 25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지원하



리가켄바이오 로고.

고 리가켄바이오 대주주 및 국내 기관투자자가 2500억원을 투자한다.

리가켄바이오는 이번 자금 조달에 기존 보유 현금 4500억원을 더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및 임상 실행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기술이전과 자체 개발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리가켄바이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는 ‘국산 1호 ADC

신약’을 내놓기 위한 임상전에 돌입하고 있다.

종근당은 올해 들어 ADC 기반 항암제 후보물질 ‘CKD-703’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받았으며 미국에서는 글로벌 임상 1/2a상 첫 환자를 등록했다. 현재 비소세포폐암을 적용증으로 하고 있고 향후 유방, 대만 등으로 임상 진행 국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는 위암, 췌장암 등 고형암 ADC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로 ‘DA-3501’을 구축해 올해 임상 1상 착수를 앞두고 있다. 또 자회사인 ADC 전문 애프티스가 개

발한 ‘애프티’를 적극 활용한다. 애프티는 ADC 링커 기술로, 항체 변형 없이 특정 위치에 약물을 균일하게 접합해 준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 시발리를 개발해 온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항체 경쟁력 검증 계도에 오른다. 양사 모두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혁신신약 개발로 사업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CT-P70, CT-P71, CT-P73 등 3종을 각각 계열 내 최고 약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번째 신약개발 후보는 ‘SBE303’로 종양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넵틴-4 단백질질을 표적으로 하는 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 1번 ‘피지컬 AI 급부상…’서 계속

로봇용 OLED 가능성 적용범위 확대 전망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미 로봇용 OLED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얼굴 위치에 13.4형 OLED를 탑재한 ‘AI OLED 붓’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지정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AI 기반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형 로봇 콘셉트로 개발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로봇 외에도 XR 등 차세대 AI 기기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WE USA 2026’에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화면 일부가 돌출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다. 폴더블을 넘어 유연성을 극대화한 기술로, 향후 로봇·웨어러블·XR 기기 등 다양한 피지컬 AI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디스플레이 역시 P-OLED를 앞세워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곡면 구현이 가능한 LG디스플레이의 P-OLED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패널 중 하나로 평가된다. 차량용 탠덤 OLED 기술을 적용한 P-OLED는 높은 설계 자유도와 함께 다양한 온도와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내구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플라스틱 기반 OLED는 유연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봇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어 향후 신규 시장 확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히 화질뿐 아니라 내구성과 전력 효율, 자유로운 디자인 구현 능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보급이 본격화될수록 OLED 적용 분야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